

용관중 선생님 많이 보고 싶어요~ 52 회 경은주



4학년때 우리반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이듬해 타고로 전근을 가셨습니다. 그시절 저를 자식처럼 업어주시고 용돈도 주시며 정말 예뻐해 주셨던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엄하시고 때로는 다정하게 우리반을 아껴주셨던 선생님을 늘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으려고도 애썼으나 맘처럼 되지않을때 친구의 도움으로 연락이 닿아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때의 편지들을 간직하고 계시단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편지 또한 선생님께서 고히 보관중이신 편지중에 하나로 그당시 저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고스란히 베어 있는 것 같아 어른이 경은주가 어린이 경은주에게 애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소중한 귀한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시간이 더 흐르기전에 찾아 뵈야겠습니다.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추석이 지난지도 며칠이 지났군요
4학년2반 저희들은 새로 오신 선생님과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너무
나 많이 내 주셔서 놀 시간이 전혀 없
니다. 선생님 소식이 너무나 늦어서 죄송
해요 집에 오면 과외 공부가 끝나면 피아
노레슨을 받으러 서울로 다녀서 더욱 바
쁘게 되었어요. (체르니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훌륭하신 용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그곳 학생
들을 생각하니 부럽기만 하군요.
저는 전 학이라도 가서 용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떠나갈
때 저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무서운 우리엄마한테 매를 맞았어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선생님과 같이 강진버를 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절로 웃음이 나요



것만 같은 즐거운 그때였어요.
공부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무서운 우리
용 선생님이지 않았지만 놀 때에는 누구보다
도 다정한 우리 친구와도 같은 신 용 선생
님이 얼마나 은주는 보고 싶은지 모르
겠어요

선생님 오늘이 한 큰 날이지요.
세종 임금님 덕분으로 이렇게 선생님께
편지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편지 드리겠어요.
선생님 그림 안녕히 계세요.

10월 9일
은주 올림